

“광주에 ‘노벨상문학관’ 건립을”

신임 박덕은 광주문인협회장

문화·창작 활성화 해결 과제
젊은층 이끌어낼 프로그램 개발
내년부터 연 2회 학동 출판기념회
소통과 화합 넘치는 문협 만들 것

“재정을 확보해 광주문인협회를 활성화시키고 소통, 화합이 잘 되는 문학 단체로 꾸려가고 싶습니다.”

최근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치러진 제 15대 광주문인협회(광주문협) 선거에서 평론가인 박덕은 전 전남대교수가 당선됐다.

현 회장인 이근모 후보를 누르고 차기 광주문협 회장에 선출된 박 후보는 “당선 자체는 기쁘지만 협회를 잘 꾸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리면서 “공연에 내걸었던 대로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합을 매개로 문학적 공감이 넘치는 광주문협을 이뤄가겠다”고 전했다. 선거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언한다.



박 신임회장은 지난 14대 선거에 이어 두 번째 도전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 문협 초대 사무 국장을 역임한 터라 이번 회장 당선은 박작가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다. 박 신임회장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전남대 국문과 교수와 학과장 역임했던 박 교수는 현재 대한시문학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올해 광주문협에서 추진하고 싶은 사업으로 노벨상문학관 건립을 꿈았다. 한강 작가가 어린시절 북구 중흥동에 거주하며 효동초등학교에 다녔던 사실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광주시, 북구청과 손을 잡고 노벨상문학관을 건립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문화과 창작의 활성화도 광주문협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대다수 예술가 단체가 젊은 작가들 유입이 없어 노년층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학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광주 문협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청소년, 대학생, 젊은층은 문학세계로 이끌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구청, 교육청과 협력해 다채로운 백일장을 개최, 신인 작가 배출에 좀 더 신경을 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학적 연대와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저서를 발간한 회원들의 노고와 성취를 축하하고 창작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2026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학동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문화 차원의 계획도 밝혔다. 박 회장은 “본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해 본 회의 모든 행사와 활동, 결정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아울러 정관을 개정, 회장의 연임을 금지해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없애는 데도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일보 신춘문예 평론으로 문단에 나온 박 시인은 광주문협 2, 3대 평론분과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현대시창작부’, ‘소설의 이론’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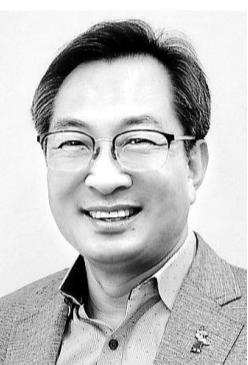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선기 평론가, 계간 ‘열린시학’ 평론상

‘시와 문화’ 평론 부문도 받아

문화평론가인 김선기(사진) 전남도립대 강의 교수가 올해 ‘열린 시학 평론상’과 ‘시와 문화 평론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계간 ‘열린 시학’은 평론집 ‘문화 공간의 미학’을 제17회 열린 시학 평론상에, 계간 ‘시와 문화’는 평론 ‘플랫폼 시대의 속도와 윤리의 시학’을 제7회 시와 문화 작가상(평론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했다.



도한국문학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글을 쓰고 싶다”고 전했다.

전남대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지역 일간 지 문화부장과 논설실장을 비롯해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장을 역임했다. 2021년 계간 ‘시와 사람’ 문학평론 당선으로 ‘문화 공간의 미학’을 비롯해 ‘시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남도 현대 시문학의 산책’ 등 저서를 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한글박물관 소장품 해설집 나왔다

‘한글, 곰곰이 들여다보면’ 발간…‘재미한국학생보’ 등 24종 수록

국립한글박물관은 미공개 소장품 중 문자적·문화적 가치가 높아난 자료 24종을 소개한 해설집 ‘한글, 곰곰이 들여다보면’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해설집은 24종의 다양한 자료를 주제별로 엮어 다른 대중 교양서다. 고화질 원문 이미지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일반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로, 헨리 아펜젤러 목사,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 등 외국인의 시선에서 조선의 언어·문화·사회상을 기록했다. 이번 해설집은 이를 한글 중심의 시각으로 다시 살펴보며 소개한다.

해설집은 전국 주요 박물관 및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전자책 (PDF) 파일은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15년 6월)는 국내에 다른 소장처가 없는 희귀본으로 한국인이 미국에서 발행한 최초의 영문 잡지다. ‘아이들보이’는 최남선이 만든 어린이 잡지로 창간호의 경우 소장처가 드물다. “아무쪼록 글은 조선말로 쓰라”는 당부를 담았으며, 어린이를 한글 독자자리 문화 주체로 설정한 근대 아동 잡지의 출발점이다.

‘코리안 리포지터리’는 한국 최초의 영문 잡지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2021년
- 유산면적

| 명칭 | 합계 (㎢) | 유산지역 (㎢) | 인증구역 (㎢) |
|----------|----------|----------|----------|
| 총면적 (㎢) | 2,030.03 | 1,284.11 | 745.92 |
| 서천 갯벌 | 104.66 | 68.09 | 36.57 |
| 고성 갯벌 | 74.11 | 55.31 | 18.80 |
| 신안 갯벌 | 1,773.40 | 1,100.86 | 672.54 |
| 보성-순천 갯벌 | 77.86 | 59.85 | 18.01 |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면적(605.24㎢)의 약 86%, 국가면적(2,482.00㎢)의 약 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자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연에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철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펄개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새들의 휴식처인 사취와 암반서식처

갯벌 위에 출추는 무희, 사취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드는 특이ティ적체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자연을 만끽하는 생태 고구 체험

VR로 만나는 생태 고구 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체험!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 유산

www.getbolworldheritage.org

예술영화가 건네는 송년 인사

광주극장, 오늘부터 ‘슈퍼 해피 포에버’ 등 4편 개봉



미야uchi 쇼 감독 ‘여행과 날’

복잡다단했던 한 해의 끝자락, 스크린 앞에서 예술영화와 함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남겨진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 광주극장은 ‘느린 질문’을 건네는 예술영화들로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관객을 기다린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작품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노벨바그’(31일 개봉)다. 영화는 1959년 파리로 시간을 되돌려 젊은 비평가였던 장 뤽 고다르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데뷔작 ‘네 멋대로 해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따라간다. 4:3 흑백 셀룰로이드 화면으로 재현된 당시의 공기와 어우러지는 노벨바그가 지녔던 자유와 반항, 영화 만들기의 순수한 열망을 생생하게 되살린다. 규칙을 깨는 방식으로 탄생한 한 편의 영화가 어떻게 세계 영화사의 흐름을 바꿨는지, ‘영화에 대한 영화’라는 링클레이터 특유의 시네마 매직이 설득력 있게 펼쳐진다.

짐 자무쉬 감독의 신작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31일 개봉) 역시 시네필들의 기대를 모은다. 3부작 형식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미국 북동부와 아일랜드 더블린,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거리만큼이나 멀어져 있던 세 가족의 재회를 그린다. 케이트 블란쳇, 아담 드라이버, 베이비 크리에프 등 배우들의 조합은 영화를 한층 풍성하게 만든다.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으로 작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사랑과 시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길어 올린 작품으로는 ‘슈퍼 해피 포에버’(24일 개봉)가 있다. 사노가 5년 전 아내 나기와 사랑에 빠졌던 향유지를 다시 찾으며 시작되는 이 영화는 한때 영원하기 바

팠던 순간들이 어떻게 기억으로 남는지를 감성적으로 그린다. 이기리시 고이에 감독은 하마구치 류스케, 미야uchi 쇼를 잊는 일본 영화의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제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베니스데이즈 개막작 선정 등 호평을 받고 있다.

극장에서 다시 만나는 고전도 빼놓을 수 없다.

‘하나 그리고 둘’(25일 프리미어 상영)은 도시 속 가족의 일상을 통해 삶의 진실과 그 이면을 짐작하게 포착한 작품이다. 에드워드 양 감독의 세계관이 집대성된 이 영화는 2000년 칸영화제 감독상 수상 이후에도 꾸준히 재평가돼 왔으며, 올해 칸영화제 클래식 부문 공식 초청으로 그 가치를 다시 증명했다. 최근 씨네21 선정 해외영화 베스트 1위에 오르며 ‘시간이 흘러도 극장에서 봐야 할 영화’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네 소녀의 삶을 시대를 넘어 연결하는 드일 영화 ‘사운드 오브 폴링’, 배우 심은경의 섬세한 연기로 제78회 로카르노영화제 황금표범상을 수상한 미야uchi 쇼 감독의 ‘여행과 날’, 은유와 상징으로 시인의 생을 담아낸 ‘석류의 빛깔’, 일본 실사 영화 흥행 기록을 새로 쓴 이상일 감독의 ‘국보’,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까지 각기 다른 결의 작품들이 연말 극장가를 지키고 있다.

성인 1만원, 디트릭스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노벨바그’